

금요일마다画廊순례 金達鎭씨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근무하는 金達鎭씨(36)는 미술계에선「살아있는 컴퓨터」로 통한다. 그는 하루 적어도 20여종의 전화를 받는다.

『화가 XXX씨의 단전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OOOO 누구의 붓인가?』 질문 내용은 심지어 『△△의 그림값이 얼마예요?』 『나』에서부터 『XXX의 화단내에서의 지우개 어떻게 드느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金씨는 아주 달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문의에 성실하게 토박토박 답해준다. 예컨대 『한국현대 미술사에서 화가와 평론가가 논쟁을 한 경우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면 70년대 초 이래의 수많은 장사레들을 술술 예시하고는 장의 성격, 경위, 의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金씨의 이런 博識은 그가 꼭 국립미술관의 자료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터득된 것은 아니다. 미술계의 국외자이면서도 미술에 대해 갖고 있는 狂의인 애정, 그걸 뒷받침하는 눈물겨운 노력, 이에게 「인간 자료실」이란 별명을 안겨주었다. 『한국 미술사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선 기초자료부터

자료수집 20년...美術史컴퓨터

외공

수집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모아온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바로 歷史가 돼버리는 소중한 자료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멸실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金씨는 고등학교만 나왔다. 어려서부터 뭐든 모으는게 취미였던 그는 처음엔 우표

를 수집하다가 중학시절부터 신문 잡지에 실린 그림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다. 그가 그림 사진뿐 아니라 미술자료 수집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게 72년 경복궁에서 열렸던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이었다. 한국 현대미술사의 정리를 목표로 열린 이 전시회의 팸플릿에 나온 출판자가 관련사항들이 정리된 것을 보고 그는 한국미술계의 허드렛일을 도맡을 자료 전문가

전국展示會 팸플릿 모아 체계적 정리
질문만 하면 술술... 현대미술관 特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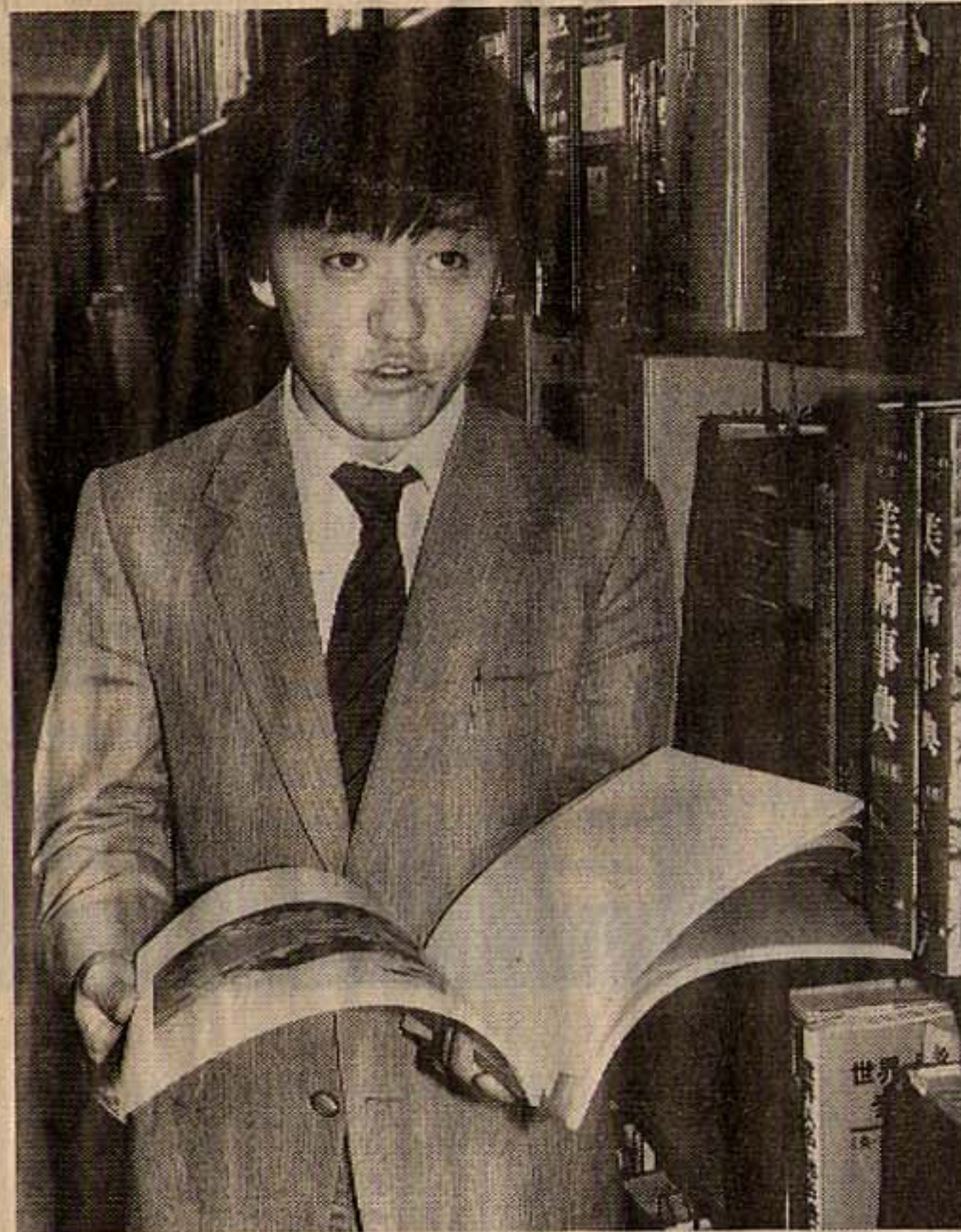
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金씨를 기특히 여겨 8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일용잡

금(일당 4천5백원)으로 채용한 이는 李慶成관장이었다.

金씨의 미술자료 수집은 1년이면 수천회씩 열리는 전국적 전시회 팸플릿을 모으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를 기초로 작가(3천5백명)별, 그들별, 날짜별 전시 목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서울 시내 화랑을 순례하는 일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소원백 하나를 들고 아침에 시청 근처의 신세계, 롯데 미술관에서 출발, 프레스센터와 사간동, 관훈동, 인사동을 거쳐 동충동까지 걸어가면 꼭 하루가 걸린다. 그동안 거치는 화랑은 30여개. 주변에선 「우편으로 부쳐오는 것만 정리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말리지만 「우편으로 오는 것은 70%밖에 안되고 직접 가면 총 전시회 팸플릿의 95%를 모을 수 있다」며 굳이 이 일을 고집한다. 지방 전시회엔 직접 못가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료가 탄탄하다 보니 金씨가 가끔 쓰는 글들은 미술계의 감춰진 부분을 폭로하고 과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선미술」 85년 겨울호에 실렸던 「관람객은 속고 있다」 정확한 기록과 자료 보존을 위한 제언. 이 글에서 그는 적지 않은 작가들이 전시회 팸플릿에서 자신의 수상경력, 학력 등을 미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의의 시정을 촉구했다.

그 외에 「전시회 카탈로그 변천사」 60여개, 공모전 「그림상과 허상」 해방 이후 여성미술의 발자취 「미술상의 실상을 분석한다」 등의 글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목을 끌었다. 각종 미술잡지나 연감, 도평론가들의 글에 자료제공을도 맡아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공일뿐이다. 金씨는 본격적인 미술사가의 과정을 밟기 위해 작년 뒤늦게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에 입학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현재 직급은 수위직급에 해당하는 기능직 10등급. 그는 그러나 「취미가 직업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나」 더 웃는다. <金泰翼기자>



◇미술계의 「살아있는 컴퓨터」 金達鎭씨. 그는 한국미술사의 기초자료가 된다면 무엇이든 억척스럽게 모아 정리하는 숨은 살림꾼이다. <사진=金柱昊기자>